

“사람사는 세상” 꿈 이루겠다...추모와 다짐의 노란물결

10주기 추모식...발 디딜 틈 없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열린 23일 봉하마을은 온종일 추모와 다짐의 노란색 물결이 넘실거렸다.

이날 새벽부터 봉하로 향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유모차를 끈 젊은 부부,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밀짚모자를 쓴 청년,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신사, 아이 손을 잡은 엄마, 등산복 차림을 한 아주머니 등 세대를 불문한 참배객들이 묘역을 찾고 추모식장을 끝까지 지켰다.

묘역 현장안내를 맡은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아침 7시 이전부터 참배객들이 오기 시작했고 주차공간이 모자라 인근 농로까지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섰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이 추모식에 준비한 의자는 3000여개였지만 오후 2시 추모식 시작 훨씬 전부터 좌석은 다 찼다. 행사장 주변 잔디밭까지 추모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재단은 추모식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까지 1만7300여명이 봉하마을을 다녀갔을 것으로 산술평가했다.

10주기 추모행사 슬로건은 ‘새로운 노무현’이다. 참석자들은 이제는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그가 바랐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

김성호(55·부산시) 씨는 “오늘 봉하마을에 온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고 말했다.

참배 행렬은 하루 내내 꼬리를 물었다. 참배객들은 고인이 잠든 너럭바위에 하얀 국화꽃을 바치거나 노란색 바람개비를 든 채 묵념을 했다. 노무현재단 회원인 전해숙(67·대구시) 씨는 “오전 연치를 내고 봉하에 왔다”며 “며칠 전에 미리 참배했지만 맘에 노정(노 전 대통령)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또 내려왔다”고 말했다. 한 여

‘새로운 노무현’ 슬로건

문 대통령 조화로 추모 대신

생가 옆 기념품점 종일 북적

성 참배객은 “우리 대통령 잘되게 해주세요,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읊조리면서 절을 하기도 했다.

외국인들도 노 전 대통령 추모행렬에 동참했다. 동료들과 함께 봉하마을을 찾은 미얀마 출신 조무린(50) 씨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살아 노 전 대통령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안다”며 “미얀마에도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잘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보낸 조화도 묘역을 채웠다. 2017년 18대 대선 후 치러진 서거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로 추모를 대신했다. 생전에 노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이 보낸 조화도 눈에 띄었다.

생가 옆 기념품점은 노 전 대통령 상징인 노란색 바탕에 그가 밀짚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 양산, 바람개비가 그려진 노란 손수건 등 기념품을 사려는 추모객들로 종일 북적였다.

이날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가지고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봉하마을 곳곳은 검색이 강화됐다. 추모식이 열리는 행사장은 X-레이 탐지기와 금속탐지기 검문 등 이중 검색을 통과해야 입장이 가능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엔 헌신하며 친절하고 따뜻한 분”

부시 전 대통령 추도사...“국익 위한 일엔 강인했다”

추도식 전 권양숙 여사 만나

직접 그린 초상화 전달

23일 업무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참석자 중 단연 관심을 끈 인사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다. 봉하마을에서 매년 업무하던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전직 외국 정상이 참석하고 추도사까지 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이 시작된 오후 2시에 입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장에 입장해 앞줄에 나란히 앉았다. 추모객들이 ‘부시’, ‘부시’를 연호하자 그는 미소를 띠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는 추도사에서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언급하며 “인권엔 헌신하며 친절하고 따뜻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분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다”며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목소리를 냈다”면서 임기 중 한국이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자유수호 전쟁’에 참여한 중요한 동맹이었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점도 거론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엄숙

한 10주기 행사가 여러분과 함께해 영광이다”고 추도사를 끝맺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아들인 건호 씨,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글을 남긴 후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를 참배하는 것으로 봉하마을 일정을 끝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 참석 전 권양숙 여사와 만나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며 “부시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파트너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2001~2009년)이 노 전 대통령(2003~2008년)과 겹친다. 두 사람은 한미정상회담 등을 기회로 수차례 만났다. 그는 2010년 펠레 회고록 ‘결정의 순간들’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2009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음을 밝히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여야4당 “노무현의 꿈 함께 이어나가자”...한국당은 논평 안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일제히 “노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꿈을 이어가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하지 않고 침묵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드는 일, 돈보다 사람

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루는 일, 이 모든 일이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목표이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노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은 우리 각자의 것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이제 희망과 미래, 기쁨과 행복의 근거로 새롭게 부활하는 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 사는 세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삶은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깨뜨리고,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었다”고 그를 회고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꿈꾸고 이루려 했던 많은 과업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그것은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념과 진영을 떠나 그분이 남겨놓은 꿈을 새롭게 이어가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주어진 과업이다. 여야가 불통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정치를 정상화하자”고 제언했다.

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고, 수구 족벌언론과 싸운 대통령이였다”며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그 높은 뜻을 되새기며, 당신께서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사람 중심의 세상, 서민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그의 가치와 철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난다”며 “정의당은 미완으로 남아있는 그의 꿈을 상식이 있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오영록 기자 kroh@연합뉴스

지난해 격동의 역사를 기록한 ‘연합연감 2019’ 발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19년판이 5월 8일 출간됐습니다. 2018년 한 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지방, 세계 등 각 분야 주요 뉴스와 각종 통계, 도표 등을 정리해 수록한 이 자료집은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150여 명의 필진이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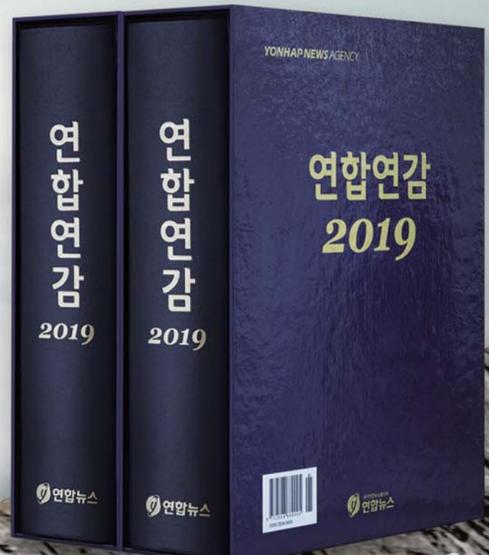
초점으로는 남북을 오가며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 문화계부터 정치권까지 뒤늦은 ‘미투’, 주 52시간 근무시대 개각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성장 논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전 세계를 달군 방탄소년단(BTS) 열풍,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여당의 입성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30년 만에 인방에서 치른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상세히 조망했습니다.

본문에는 분야별 뉴스를 사진과 그래픽, 표 등의 시각자료를 곁들여 체계적으로 편집하는 한편, 중요 사건·사고를 일자로 요약·정리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으며 국내외 및 북한의 주요 뉴스를 화보로 묶었습니다. 각종 현황에서는 국가별 지도와 면적·인구·언어 등 개요에 더해 최근 상황까지 담았습니다.

자료 편에선 통계, 일람,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역대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자료를 별도로 엮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등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와 현황을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뉴스와 조선중앙TV 보도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해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정구역별 지도와 함께 나열한 사·도 지리와 김정은 신년사를 비롯한 주요 연설 및 성명·담화문, 북한 10대 뉴스, 일지, 연표 및 북한 주요 인물들의 학력과 경력 등을 소개해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는 1981년부터 연감 제작을 시작해 올해로 통권 39권을 발간했습니다.

- 4×6배판 양장본, 총 1천420쪽
- 가격 : 18만원



www.yonhapnews.co.kr
2019 연합연감 출간

